

# 지스트 CT연구소, AI 기반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전시

- 10월 13~18일, 서울 서초유스센터에서 '아시아의 문화유산' 주제로 전시회 개최
- 미디어월, 혼합현실 3D 등 첨단 문화기술 적용, 석굴암·석탑 등 문화유산 체험



▲ 홀로렌즈 장비로 3D 문화유산 조립 체험(전면) 및 미디어월 콘텐츠 체험(후면)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한국문화기술연구소(소장 전문구)가 XR(eXtended Reality, 혼합현실) 환경에서 문화유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람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.

<SILK ROAD - 헤초의·길>을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0월 13일(목)부터 18일(화)까지 서울 서초유스센터 1층 전시실에서 열리며, 신라시대 승려 헤초의 여행 경로를 따라 국내와 아시아의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정보탐색형 전시이다.

최근 개발한 문화기술이 적용된 이번 전시는 ▲제스처 및 행동인식 기반의 미디어월 ▲혼합현실 3D 문화유산 체험 ▲AI기반 이미지 영상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.

[미디어월] 전시에서는 동서양 문명교류가 이루어졌던 실�크로드와 신라시대 헤초의 왕오천축국전 등을 소개한 영상과 이미지 정보를 간단한 제스처를 통해 탐험하듯 관람하게 된다.

**[혼합현실 3D] 전시**는 가상이미지와 현실 공간이 중첩되어 보이는 홀로렌즈 장비를 착용한 채 석굴암, 다보탑 등 문화유산을 자세히 관찰하고 석탑을 조립·해체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.



▲ 홀로렌즈 전시구현 이미지

**[AI기반 이미지 영상] 전시**는 다양한 국내 석탑 이미지를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시킨 후 그 특징을 가상의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관람객에게 보여준다.

전시회에 적용된 기술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 R&D과제(과제명 :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기반 스마트 무대전시 동적공간 인지형 미디어월 플랫폼기술 개발, 기간: 2020.05.~2022.12.)의 일환으로, 전시 공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**AI기반 시각화, 실감형 스마트 미디어월 운용**을 위해 개발됐다.

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전문구 소장은 “최근 가상현실, 혼합현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더욱 생생하고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”며 “**전시서비스 실증을 통해 관람객 체험과 활동 데이터를 확보**하고 기술개발을 이어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5(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)에 따라 지스트에 설립된 문화기술 연구기관으로, 현재 문화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비롯한 인공지능(AI) 기반 예술융복합 창작, 미디어파사드 매핑기술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문화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.